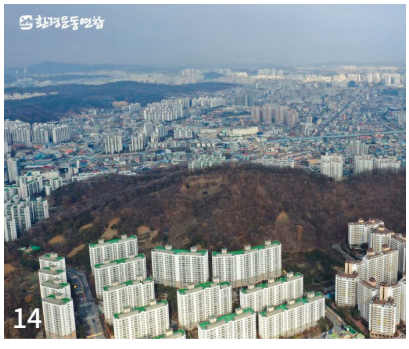
CONTENTS



2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70
이근생 옥천네트워크 사무국장

8 대청호 마을 스토리텔링 1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김홍래 이장 인터뷰

14 정책&이슈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과 주민투표운동

20 네트워크 사업보고 - 금산, 대전, 보은, 무주, 옥천, 천안, 영동, 청주

32 정책연구위원회 사업보고

33 사업보고 - 2020 서화천 수질개선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34 사업보고 - 2020 회인천 수질개선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35 사업보고

36 대청호 뉴스&뉴스

38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40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소식 vol.125

발행일 2020. 9. 29
발행인 최병욱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이건희
사무처 이건희, 임정미, 김재곤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이강혁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대청댐물문화관 2층
전 화 042) 930-7340~1
전 송 042) 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월간토마토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동로 574 2층
042) 320-7151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서 하는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천을 깨끗하게 하고 마을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열정은 높았다. 보은 성족리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 흐르고 있는 성족천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마을과 하천환경을 맑게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농업, 농촌, 지역을 아끼는 자유인

이근생 옥천네트워크 사무국장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옥천군 안남면에서 농사를 지으며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옥천네트워크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근생(56) 사무국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9월 중순에 안남면의 한 고즈넉한 꽃차 카페에서 이근생 대표를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옥천을 아끼며 살아온 인생이야기

-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고향은 보은군 회남면 판장리이다. 판장리에서도 아주 산골짜기였는데 동네이름이 큰골이었다. 큰 골짜기라는 뜻인 것 같다. 짐을 나르는 운송수단이 지게 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당시에는 질병 등으로 인해 뒤늦게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의 세대가 그런 일들이 많았던 마지막 세대인 것 같다.

초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옥천으로 이사를 왔다. 옥천읍 수북리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보은의 판장리도 금강과 가까운 마을이었지만 수북리도 금강변의 마을이었다. 우리 세대에는 집안사정이 되지 않아 대학까지 공부하기 힘든 사람이 많았다. 나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인천으로 가서 객지생활을 했다. 인천에서 군복무 겸 특례보충역으로 5년간 근무하였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20대를 보냈다. 당시에는 모두들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나만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지만 그 때는 부모가 가난해도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

인천에서 살다가 1996년에 옥천으로 귀향하였다. 나는 인천이라는 도심생활이 정서에 맞지 않았고 매력적이지 않았다. 나의 아내는 도시가 편했지만 나는 농촌이 좋았다. 1998년에는 대전에 있는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전기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하였다. 특례보충역 때부터 해왔던 전기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것이다. 1998년부터 2015년까지 17년간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일을 하였지만 마음은 농촌을 떠나지 않았다. 삶의 지향은 농업과 농촌을 계속 향하고 있었다. 하기에 지질자원연구원도 옥천에서 출퇴근을 하였다. 출퇴근 거리문제나 자식 교육 등 때문에 대전으로 이사 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나는 정서적으로 옥천이 좋아서 옥천을 떠날 수 없었다.

2015년에 지질자원연구원에서 퇴직한 후에는 옥천읍에서 안남면으로 이사하였다. 안남면으로 이사하게 된 계기는 옥천신문과의 인연 때문이었다. 지역신문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기에 오래전부터 옥천신문을 돕기 위해 주주가 되었었다. 그런데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옥천네트워크 사업인 ‘금강

여울길 걷기(대청호길 걷기)’를 옥천신문사가 주관하게 되었고 나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안남면 독락정, 동이면 석탄리까지 여울길 걷기를 하면서 안남면을 살펴보게 되었다. 안남면의 다양한 면을 알게 되면서 정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안남면에서 자리 잡게 되었다.

안남면은 뭐라 특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특별한 점이 있다. 옥천군의 읍·면 중에서 면적이나 인구 등에서 가장 작은 면이지만 안남만의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다.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 ‘배바우’라는 지명을 활용해 안남면 농산물 공동브랜드 ‘행복 방앗간 배바우’를 개발하는 등 다른 면 단위에서는 보기 힘든 특별함이 있다. 물론 그 속에 갈등이 없지 않지만 지역주민들이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응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내야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동안 잘 해왔지만 농촌경제 전반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 하기에 새롭게 변화하고 모멘텀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인연을 따라가며 맺은 관계들

- 대청호주민연대 등 단체 활동에 대해 여쭤보았다.

“대청호주민연대 등 지역의 단체를 알게 되고 함께 하게 된 것은 사람들과의 인연 때문이다. 옥천군이 작은 군 단위이기는 하지만 2016년에는 촛불문화제를 꾸준히 해왔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옥천군 농민회가 활동하고 있는 곳이고, 지역신문인 옥천신문이 옥천을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들어 가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인연이 닿아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다 보니 서로 잘 알게 되고, 인연 따라 가다 보니 지금의 자리에 와 있었다.

나는 낙관주의자와 같은 성격이 있다 보니 적극적인 활동가는 아니다. 단체의 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일이 되려면 끈기와 고집이 있어야 하고, 철학도 있어야 한다. 또 성실성 등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일이 추진되고 뭔가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데 나에게는 그러한 점들이 부족한 것 같다. 나는 이렇듯 부족한 사람인데 인연이 닿은 사람들은 나와 달리 적극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보니 ‘이 사업 같이 하자’, ‘이러한 역할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고 함께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옥천군 농민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농업, 농촌이 어렵다보니 농민회도 운영이 많이 어려운 현실이다. 농촌경제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어렵다보니 농업을 등한시하고 농촌을 떠나고 있다. 농업부문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농민회 회원들도 많아지겠지만 그렇지 못해 많이 안타깝다.

현재 맡고 있는 직책과 활동을 나열해보면 대청호주민연대 사무국장, 배바우작은도서관 운영위원,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옥천푸드협동조합 및 옥천살림협동조합 조합원, 화학리 마을 개발위원, 안남어머니학교 교사 등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활동이 농사이다. 농사꾼으로서 건강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야 하는데 초보농사꾼이다 보니 잘하지 못하고 있어 부끄럽다. 작년까지는 포도농사를 많이 하였는데 포도밭이 안남면 노인복지관 부지가 되어서 팔게 되었다. 현재는 서리태, 호두나무, 밀 등을 농사짓고 있다. 호두나무는 5년 밖에 안 되어 한 나무에 5~6개 밖에 안 달려있다. 농사도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이다.”

소중한 환경 위해 상하류가 힘 모아야

- 기후변화, 환경문제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나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환경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B급 환경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내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분야 중심으로 고민이 크다.

올해 유례없이 긴 장마를 단순한 장마라고 보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이 또한 기후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의 경우 긴 장마로 인해 다른 부문도 힘들겠지

만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문이 농업분야이다. 고추, 깨, 채소류 등 일부 품종의 경우는 올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런데 고추, 깨, 채소류 등이 농민들에게는 소득 작물이다. 또한 올해 봄에는 많은 과수농가가 냉해피해도 심각하게 입었다고 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농민들이 농사짓기가 참 힘들 것이다. 올해는 이 정도 상황이지만 앞으로 기후위기가 지속된다면 농업에서도 끔찍한 재앙이 올 것이다. 단순히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농사짓기가 어려워지고 농민이 더욱 더 줄어들고 농산물이 생산이 되지 않는다면 식량주권 문제, 먹고 사는 생존 문제가 된다. 그동안에는 품종개량, 비료개발 등으로 농산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하였다. 이 덕에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먹고 살았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더욱 악화된다면 큰 문제가 된다. 물만 먹고 산소만 먹고 살 수 없지 않은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은 댐 지역의 규제에 대한 문제이다. 유유히 흐르고 있는 금강에 경제성장 등으로 인해 물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댐이 건설되었다. 그런데 댐으로 인한 지역의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어렵다. 주민들에게 수질보전의 댓가가 더 지원되어야 한다. 그 댓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상류 주민들이 화학비료와 제초제 등을 쓰지 않고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초제는 매우 위험하지만 주민들은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제초제를 많이 뿌려가며 농사를 짓고 있다. 제초제로 풀이 없어지고 풀이 없다보니 비가 오면 토양유실도 많다. 유실된 토양이 제초제 성분을 머금고 하천으로 대청호로 흘러드는 것이다.

상류 주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고 하류 주민들은 그 농산물을 구매하면서 댐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고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한 번에 될 수 없겠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나갔으면 좋겠다. 상·하류간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닌 서로 이해하면서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가 이런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지향적으로 사고하며 실천하자

-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활동에 대해 여쭤보았다.

"대청호로 인한 많은 규제 때문에 주민들은 대청호를 애물단지로 여기기도 하지만 대청호는 상·하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공유할 것인가 등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기에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옥천네트워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참 많다고 본다. 최근에 열린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 등은 의미 있는 시작이자 실천이다. 앞으로는 인근에 있는 대전과도 잘 협력하여 활성화되길 바라고 상·하류 교류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상류 주민으로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토지매수 문제이다. 농촌이 힘들고 농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보니 농사를 지을 땅을 금강유역환경청에 팔고 있고 토지매수를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새로 귀농한 사람들이 경작을 해야만 가치가 창출되고 농촌경제가 돌아가고 지속가능해 질 것인데 그러한 땅을 금강유역환경청이 사들여 외부업자에게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고 통제만 하게 하는 것은 환경에도 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한 정책이다.

정말 토지를 매수하려면 오염이 정말 심각하거나 환경에 문제가 되는 곳만 제한적으로 매수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토지매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멀리 있고 지역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에 따라 별다른 고려 없이 토지가 매수되고 있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매수된 토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외부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이 직접 관리하면서 지역 전체가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토지매수 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없어지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서도 그동안 토론회 등을 통해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많은 건의와 제안을 한 상황이라고 하니 앞으로 함께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모쪼록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모든 구성원과 각 지역이 서로 단합하고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여 더 큰 성과를 내고 소중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나 또한 힘을 보태겠다."

다른 때보다 2배 가까운 시간동안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그 만큼 열정적이고 때로는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옥천네트워크의 사업에서 지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근생 국장의 모습이 그려지고 기대가 되었다.

글 박병춘 대전대신고등학교 교사

“보은의 브랜드 하면 우리 성족리 대추랍니다!”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김홍래 이장 인터뷰

구름이 산허리에 내려와 숲과 만난다. 그 속삭임이 무엇일까 알 수 없으나, 아름답게 은밀하다. 7월 26일, 일요일, 비 개인 오후, 아내와 함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를 찾았다. 인터뷰 약속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도착하여 마을 주변을 둘러보고 특히 동학 농민혁명 기념 공원에서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 동학 농민 혁명 최후의 격전지 중 한 곳인 보은군 성족리 일원에 조성된 공원으로 위령탑, 돌성, 민중의 광장, 하늘 계단 등을 설치하여 동학 운동의 이념과 역사적 가치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생태 공원이다.

마을 곳곳에 충암 김정 선생, 성대곡 선생 등 조선조 학자들을 모신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유서 깊은 마을임을 한눈에 짐작할 수 있다. 마을엔 대추나무가 빼곡하고, 대추나무마다 비닐 지붕이 설치되어 있다. 명실상부한 대추 마을로 곳곳에 대추 농원이 형성되어 있으니, 보은 대추가 왜 유명한 건지 궁금증을 더했다.

“아, 네에, 이장님! 마을 회관에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내려오세요. 내가 집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을게요.”

친절하셨다. 성족리 마을을 대추 농사로 부강하게 만들고 화합을 이끌어낸 김홍래(59) 이장님을 만났다. 우선 사진 촬영을 하고 대추 농장 구경을 했다. 연녹빛 대추들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렸고, 14년이나 된 대추나무들은 그 몸통이 코끼리 다리처럼 굵직했다. 마당 한 켠 야외 테이블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선 자기 소개를 부탁했다.

"대구에 있는 처제 댁에 가서 하루 저녁 자고 와야 하는데, 오늘 인터뷰도 있고 해서 부랴부랴 달려왔어요.(웃음) 저는 대추 농사 6천 평 가량 짓고 있고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도시 생활 15년 정도 하다가 뜻한 바 있어 1985년도에 귀농을 결심하고 고향 마을에 정착했지요. 우리 마을은 콩 농사처럼 전형적인 과거 농사법만 있었고, 저는 대추를 보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00 산업이라고 반도체 회사로 유명했는데, 제가 거기서 자재 업무를 보았어요. 그러다가 고향행을 작심했는데, 회사 사장이 직접 찾아와서 만류할 만큼 능력을 좀 인정 받았었죠. 저는 시골에 정착하며 농촌 개혁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대추 농사 짓기를 주창했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께서 쉽게 따라오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당시 대추 군수로 알려진 이향래 군수님은 보은군의 브랜드는 대추라고 하여 우리 마을을 대추 단지화 마을 1호로 선정하셨지요. 저는 대추 농사에 전념하며 성공적인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성족리에는 53세대 93명이 거주하는데, 대추 농사는 37가구가 짓고 있어 효자 종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마을 주민 전체가 자부심을 갖고 대추 농사를 짓는다. 저마다 최선을 다해 소득 차원에서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김 이장의 노력과 설득으로 대추 단지화 마을로 우뚝 서서 동네 사람들이 고마움 속에 단결하고 있다. 이후 이장 생활을 9년째 역임 중이고, 보은군 대추 연합회 회원 1700여 명을 대표하여 4년 동안 회장직도 수행했다.

김 이장의 마을 대추 자랑이 이어졌다. 고향에 정착한 후 이듬해부터 보은군에서 대추 농사를 짓는 10여 명 전문가들과 소통했다.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면서 대추 묘목을 구매하여 심었다. 수확이 나자 판로가 문제였다. 성족리는 속리산 나들목 주변에 위치하여 관광객 출입이 많은 것을 활용했다. 김 이장의 아내는 대로변에서 생대추 판매를 시작했다. 그 수입이 놀랄 만큼

많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김 이장은 동네 사람들에게 직접 거리 판매를 하도록 독려했다. 한마디로 팔기 바쁠 정도였다. 동네 사람들은 동참했고, 대추 나무를 정성스레 키웠다.

김 이장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00 산업 지인들에서 대추를 선물하고, 주변과 소통하여 판로를 넓혔다. 품목을 확장하고 직거래를 시작했다. 맛이 좋고 평도 좋아 한 사람이 열 명을 소개했다. 판로를 개척하고 생산 단위를 넓혔다.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동네 주민들과 화합했다. 동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대추를 브랜드화하고 수많은 지도자들과 협력하며 넓은 면적에 대추나무를 심고 공들여 생산했다. 성족리는 온도 편차상 대추 생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지닌다. 다른 지역보다 사질토가 많아 토질이 좋고 당도가 높아 호평에 호평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단위로 농사를 짓다 보니 농기계 시설 교체가 절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 대책이 나와 주기를 고대한다. 농사 중에 어려움도 있다. 꽃이 펴서 열매로 맺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다. 그러한 애로 사항을 극복하려고 기술 센터에서 대추 농사 과정을 수료하며 자체 노력도 많이 한다. 대추꽃이 필 때 비가 내려 꽃이 떨어지면 그해 농사는 실패다. 꽃 피는 시기와 장마철이 맞물려 있어 장마철만 되면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독자 여러분께 퀴즈 하나를 낸다. 대추 나무에는 반드시 비닐 지붕을 만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답의 절반은 나왔다. 개화기에 비를 맞지 않게 하는 수단이다. 나머지 절반의 이유는 무엇일까? 대추에 비나 이슬을 맞으면 대추가 갈라져 상품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사과의 두 배, 다른 과일보다 당도가 두 배도 넘는 보은 대추에는 시설 하우스가 필수다. 하우스 지붕을 쳐도 장마철마다 초긴장이다. 수확할 때 인력도 문제다. 외국인 노동자에 주로 의존하는데, 수확기 때는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일손을 돕는다.

성족리 대추는 마을 효자 종목으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냈다. 도시에 나가 있던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대추 농사를 짓는 것이다. 부모들의 대추 농사를 이어받아 안정적 정착을 했다,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많이 하여 성족리 마을에 청년 회원만 23명이나 된다. 다른 농촌 마을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점이다. 여기서 청년이라 함은 20~30대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41세까지 61세까지 현재 농촌 현실을 감안한 청년들이다. 여기에 부녀회원들까지 협력해서 성족리 대추는 여러 모도 조화로운 박자가 돋보인다. 성족리 대추 작목반은 늘 활기가 넘친다. 무슨 일이든 소통하고 경청하며 협력한다. 여기에 동네 어르신들까지 한마음으로 뭉쳐 생산 효과 만점이다.

8월 6일에는 복달임 행사를 앞두고 있다.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온갖 음식을 장만하여 하루를 즐겁게 지내는 성족리 마을의 문화 행사다. 정기 여행은 3, 4월 경에 진행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뤄진 상태다. 해마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주도를 비롯하여 여행을 한다.

김 이장이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에 내려와 반드시 실천한 생활 철학이 있다.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반드시 8시간은 집 밖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들이든 산이든 무조건 집 밖에서 8시간 일하기 법칙을 실천했다. 그런 김 이장을 보고 동네 어르신들은 산에 두어도 살 사람이라고 성실 근면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산립 조합에 작업단을 구성하고 정착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산립 조합 이사로 발탁되어 능력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성족리 마을이 힘을 합쳐 대추 농사를 짓게 되면서 마을에 혈기가 돋았다. 다른 마을은 사람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한다지만, 성족리 마을은 마음만 모으면 바로 실천하며 지극정성으로 대추 농사를 지어 안정적 소득을 누리고 있다.

대추 단지화 마을 1호로 선정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속리산 나들목 인근에 위치한 점을 활용하여 나들목 좌우에 대추나무를 심었다. 대로변 땅 소유주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대추나무를 심었다. 당시 보은 군수와 행정 요원들이 마을 주민들과 토론을 거쳐 12헥터에 이르는 땅에 대추나무를 심었다. 보은군은 열정적으로 지원했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힘을 모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대추 농사를 짓는 전문가들을 만나고 견학하며 내공을 쌓았다.

김 이장은 대추 판로에 약간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대추 축제에서 파는 양은 많지만, 직거래를 하다 보니 힘이 드는 게 사실이다. 대추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면 농협 등 관계 기관에서 수매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보은 대추는 처음부터 직거래를 해온 터라 판로 개척이 좁은 편이다. 인터넷 판매도 하고는 있으나 농협이나 산립 조합 등 유관 기관에서 유통망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는 평가다. 대추를 따고, 선별과 세척을 거쳐 포장하고 택배하기까지 소비자까지 가는 단계가 여러 모로 힘들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부담스럼 과정이다. 건대추로 팔면 소득이 절반으로 줄고, 생대추로 팔아야 소득이 좋다.

김 이장은 대청호 보전운동본부와의 인연과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하천 주변 정비 작업으로 인연을 맺어 동학 공원 추모 행사, 벽화 그리기 선정 등 마을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데 대청호 보전운동본부가 촉매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김 이장은 그곳이 어디든 환경 정화 활동을 위해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대청호 보전운동본부와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글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숲을 죽여 숲을 지킨다고?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과 주민투표운동

일봉산 전경(주변 기존 아파트로 둘러쌓인 전경) @환경운동연합

"누구 맘대로 도시공원을 민간개발자에게 맡기나요?"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연합 사무국장의 말에 날이 서있다. 그는 지난 12월 1일, 일봉산 6.2미터 나무 위의 고공농성에서 17일 만에 내려왔다. 오를 땐 스스로의 힘으로 올랐으나 내려올 땐 아니었다. 적지 않은 나이에 홀로 11월 추위 속의 산에서 텐트 하나에 의지해 열흘 넘게 단식까지 했으니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던 것이다. 의식을 잃은 그를 구급대원들이 들어내려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큰 이상 없이 퇴원했지만 그는 건강을 다 회복하기도 전에 다시 일봉산을 찾았다. 고공농성과 단식농성의 후유증이 그를 괴롭히고 있지만 일봉산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까닭이다. 고공농성과 단식을 중단했지만 그는 아직도 일봉산 상황실로 출퇴근하며 일봉산 개발을 막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

숲 지켜 달라 묵살한 시와 의회

아파트와 건물, 도로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턱밑까지 그 세를 넓혔지만 일봉산은 숲으로 남았다. 상수리, 단풍나무, 잣나무 등 수많은 나무들이 10미터가 넘어 사계절 울창함을 자랑한다. 천안의 허파라 불릴 만하다. 접근성도 좋고 완만한 경사라 누구든지 어려움 없이 숲길을 걸을수 있어 주변 주민들은 물론 천안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도심에서 일봉산이 제 모습을 지키며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봉산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도시공원에서 해제되었다.

올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전국 도시공원의 53퍼센트, 504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예정이었고 천안 일봉산도 그 중 하나다. 천안시가 일봉산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도 20년 넘게 차일피일 부지매입과 조성을 미룬 탓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 된 것이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주민들은 2년 넘게 일봉산을 지키기 위해 천안시에 합리적인 절차를 요구해왔었다. 주민들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하자고 요구했지만 천안시는 이마저도 거부했었고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어 고공농성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와중에 시민들을 대변할 시의회마저 시민들의 뜻을 저버렸으며 천안시의회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면서 부결시켜버렸었다. 천안시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는 건 시민들의 뜻을 대변할 의지가 없었기에 걷잡을 수 없는 상실감과 절망감

1) 환경운동연합 월간 함께사는 길 2020. 2월호

이 컸었다. 도저히 합리적인 이야기로는 안 되는구나 싶어 단식농성을 선택했고 주변의 만류에도 고공농성과 단식농성을 택하게 된 이유였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일봉산을 지켜야 했고 세상에 일봉산 개발의 부당함을 알려야 했기 때문이다.

참나무 숲 밀어 도시공원을 지키겠다고?

일봉산을 지켜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천안시가 내놓은 대책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었다. 천안시가 지정한 민간사업자에게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토록 해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해주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 시설로 기부 받겠다는 것이다. 천안시가 지정한 민간사업자는 일봉산 참나무 숲을 밀어 2753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래도 70퍼센트는 공원으로 남지 않느냐는 것이 천안시의 주장인데 과연 그럴까? 공원시설로 기부한다는 70퍼센트 부지들 대다수는 경사도가 급하거나 접

근도가 떨어져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고 또한 70퍼센트도 온전히 보전되는 게 아니다. 공원으로 보전한다는 부지에 수백 대의 주차장을 건립하고 문화체육시설, 수영장,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인위적인 시설 중심의 개발 계획이다. 50~60년 된 참나무 군락지를 밀어버리고 인공시설 위주의 공원을 만들겠다니… 어불성설이다. 시민들의 반발에도 천안시는 일봉산 외에 2곳의 도시공원도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따라 민간사업자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3개 도시공원 모두 아파트로 개발될 계획인데 문제는 이곳이 아파트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미

분양이 적지 않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도시 환경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민간특례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 맘대로 도시공원을 민간개발자에게 맡기는가? 사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예고되었던 일이었다. 그 긴 시간동안 천안시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도시공원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일봉산 개발예정지의 15퍼센트가 국공유지로 국토부가 존치 권고안을 냈는데도 반영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대안으로 요구한 것들마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개발업자 편에 서서 개발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일봉산 도시공원 보전 시민운동이 남긴 일

지난 7월 13일,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전국 최초로 또한 천안시 역사 이래 최초로 치러진 법정 선거였던 천안 일봉산 주민투표 결과를 검허히 수용하며 2년여간의 활동을 접고 공식 해산을 하였다. 일봉산 도시공원 보전 운동은 결국 주민의 의사를 확인조차 해보지 못한 채 끝이 났고, 행정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일단락 되었다. 늦었지만 지면을 빌어 이번 일봉산 보존운동에 함께 응원해주시고 주민투표에 참여한 모든 시민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너무도 아쉽지만 시민여러분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투

천안시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주민투표 실시 발표 기자회견

일봉산지키기주민투표운동본부 해단식

표율이 주민투표법이 정한 1/3에 미치지 못해 개표조차 할 수 없었다. 천안시에 이번 주민투표 전,후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갈등을 치유하고, 도시공원 보전을 바라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를 제언 드린 바 있다. 결과를 떠나 일봉산 주민투표는 환경보전과 도시공원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또한 불통과 일방 행정의 문제를 시민의 직접 참여로 극복하고자 한 매우 의미 있는 지역 민주주의 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본다.

거듭 일봉산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과 주민투표 과정 과정마다 땀과 열정을 나눠주신 모든 시민 분들께 감사드리며,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 환경보전과 시민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이다.

글 김청자 금산네트워크 팀장

사과마을 바리실의 깨끗한 마을 만들기 성공사례

분리수거 활동 중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가운데 필요불가결한 것이 많고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잘 처리하면 좋을 쓰레기가 있다. 각양각색의 생활터전에서 생활의 편리를 위해 사용되는 많은 포장제들,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개발한 물품들이 인간을 위해하는 요소가 되어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 잘 쓰고 잘 버려야 할 물건, 쓰레기! 내게서 멀어지면 그뿐인가? 내게 있을 때 가장 깨끗한 쓰레기를 잘 정리해서 정한 날에 내놓는 쓰레기배출 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회원마을이 있다.

금산군 제원면 명곡2리 바리실마을은 맛있는 사과로 유명한 마을이다.

농촌마을이 다 그렇듯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아 쓰레기 분리수거가 참 안 되는 마을 중 하나였던 바리실마을 최광수(57) 이장님은 매월 정리되지 않아 수거해가지 않는 쓰레기를 젊은 지도자와 직접 치울 수밖에 없었다. 각종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하지 않고 버린 쓰레기들은 길고양이와 쥐 등 야생동물들이 봉지를 찢고 헤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파리와 모기 등 해충의 서식지였고 쓰레기 집하장은 주변은 항상 지저분한 채 마을입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민하던 최광수이장님은 지난 6월 1일부터 쓰레기 배출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마을 쓰레기 공동 집하장을 영구폐쇄하고 재활용 쓰레기와 폐기물은 따로 분리하여 폐기물은 마을기금으로 유상 처리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모아두었다가 주 1회 정한 날에 수거하고 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주민들도 이제는 모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 당일 마을회관으로 가져오면 이장님이 쓰레기봉투에 이름을 기재하고 새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나눠준다.

맛있는 사과생산지인 바리실 마을은 매년 사과 맛보기 체험축제 등 행사에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마을인데 마을입구에 쓰리기가 지저분하게 널려있어서 청정마을 이미지를 흐리고 있었다.

사업 전

사업 후

사업 전

사업 후

쓰레기 배출 실명제실시 이후 마을이 눈에 띄게 깨끗해지고 깨끗한 마을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바리실마을은 22명의 마을 어르신들로 조직된 시니어봉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자원봉사센터1365에 등록한 시니어봉사단은 마을주변청소, 풀베기, 꽃밭가꾸기 등 환경정화에 앞장서고 있다.

쓰레기 실명제 도입한 후 바리실마을 주민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의식이 바뀌어 환경미화원의 고충이 해소되고 작업시간이 단축되었다. 주민들 또한 스스로 깨끗해진 환경에 만족해하며 적극 동참하니 깨끗하고 쾌적해진 마을이 된 바리실 마을의 사과는 올해 더욱 맛있을 것 같다.

글 유지현 대전네트워크 팀장

얼굴 있는 생산자와 친환경 지역농산물을 사랑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농산물보따리

2020년 대전네트워크는 '소유역거버넌스를 통한 대청호 수질개선활동' 이라는 사업명으로 기존에 진행했던 활동과는 다른 주원천을 중심으로 새로운 활동들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모든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 많은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전네트워크 사업 중 매년 진행해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더 빛이 나고 있는 농산물꾸러미의 원조라 자부하는 '대청호농산물보따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청호농산물보따리 사업은 대전네트워크에서 2011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10년 가까이 꾸준히 진행되어온 대청호농산보따리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대청호 상류 주변마을에서 생산한 친환경 제철농산물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대전충청인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지킬 수 있고, 대청호 상류지역 농가들의 안정적인 유통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바른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공공급식의 공급이 막히면서 친환경농가들의 피해가 큰데 작게나마 도시의 소비자들과 비대면으로 농산물로의 소통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가까운 먹을거리를 이용함으로써 이동하는 동안의 에너지 소비와 이동수단을 통해 배출되는 CO2를 줄이는 먹거리운동인 '로컬푸드운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월1회, 3만원의 비용으로 대청호 주변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친환경 제철농산물, 가공품을 대전지역 소비자들에게 다른 구성으로 공급하고 있는 대청호농산물보따리를 통해 대청호상류지역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 알리고, 보따리를 통한 대청호농산물 재구매 촉진하며, 대청호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얼굴 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사랑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농산물보따리!

한달 한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글 육예화 보은네트워크 팀장

보은네트워크와 함께하는 내고장 청정마을 만들기

보은네트워크에서는 내고장청정마을 만들기 사업중 매년 1회 회원마을과 하천감시단 회원, 환경연합 회원이 함께하는 선진지 견학과 회원마을의 낡은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는 벽화그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벽화그리기가 취소가 되어 아쉽게도 다른사업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가 잠시 주춤할 때 진행하게 되어 부여궁남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정원이고, 천만 송이가 넘는 연꽃이 가득 연못을 채우고 있고, 아름답게 핀 형형색색의 연꽃들이 있는 부여궁남지, 부여박물관, 정림사지5층석탑까지 역사 해설가님의 역사설명을 들으며 역사의 소중함과 보존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년 하천감시단원, 환경연합회원, 회원마을 주민들과 견학을 다녀오면서 서로 친밀해진 관계를 느낄수 있으며, 환경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높아지고, 회원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줍는 모습으로 인해, 주변관광객들도 같이 쓰레기를 버리지않고, 들고 다니거나, 줍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은네트워크는 앞으로도 회원마을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가면서 습지위주의 견학을 통하여, 대청호보전운동본부를 알리고, 환경을 지키고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선진지 견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 내년에는 낡고 오래된벽이 귀엽고 예쁘고 화사하게 새로이 태어나 마을주변환경을 주민들 스스로 깨끗이 관리할수 있는 벽화그리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글 전선화 무주네트워크 팀장

어려움 속에서도 빛났던 주민들과의 활동

올해는 코로나 19로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청호 맑은 물 만들기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찾아가 마을 주민들에 참여 속에 진행을 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코로나로 인해 마을 회관은 폐쇄가 되었고 잠시 일상생활에도 멈춤이 있어 사업진행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이 될 때마다 마을에 찾아가 조심스레 사업진행을 했다.

올해 무주네트워크에서는 해마다 회원마을 주민들과 함께 진행해왔던 회원마을가꾸기 사업과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었던 소유역 거버넌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유역 거버넌스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회원마을 두 곳을 선정하여 대청호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에 대한 소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였고 하천 중 오염원이 많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촌마을에서 필요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설치. 음식물 분리수거함 설치, 주민환경교육 및 친환경제품만들기. 하천정화활동등 다양한 사업진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활발한 사업진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회원마을가꾸기 사업에 주요내용은 친환경제품만들기 및 주민환경교육. 정화활동이 있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장마철이 길어지면서, 높아진 습도로 인해 집안 습기제거와 냄새 제거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제습토 만들기 사업이 주민들에게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천연제습토는 냉장고 신발장 옷장 습하고 냄새가 나는 곳에 넣어두면 제습. 탈취제거 효과가 있고 영구적으로 가정에서 쓸 수 있어 올해처럼 비가 자주 내려 습한 날씨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천연제품이라 주민들이 많이들 좋아하셨다. 이처럼 주민들에 호응과 관심이 높을 때 함께 진행 되었던 주민환경교육도 다른 때보다 교육에 효과도 높았다 .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주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사업이 끝나는 대로 마을에서 얼른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아쉬움이 컸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 예전처럼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회원마을주민들과 대청호 맑은 물 만들기 사업진행이 되길 바래본다.

글 오희진 옥천네트워크 팀장

소유역거버넌스 “안남천협의회”

옥천네트워크는 2020년 사업을 소유역거버넌스의 추진을 위해 “안남천협의회”를 진행합니다.

대청호로 직접 유입되는 안남천을 중심으로 안남면 화학리, 청정리, 연주1리, 연주2리 4개마을을 직접 관리하여 소유역단위의 하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려 합니다.

“안남천협의회” 사업내용으로는 마을별 정화활동, 환경교육, 회의, 축분조사 등이 있습니다.

안남천을 중심으로 안남면 4개지역(화학리, 청정리, 연주1리, 연주2리)을 선정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마을별 정화활동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천 및 마을 별 정화활동을 통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진행하였고, 연주

연주1리

연주2리

화학리

1리와 2리는 각각 2회씩 화학리는 1회 진행하여 총11.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별 환경교육과 정화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치축분 조사를 진행한 바 안남면일대 8개읍 11곳의 방치축분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 중 덮개작업이 되어 있지 곳은 4곳, 덮개가 있으나 벗겨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곳은 2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축분으로 확인되며 청정리 축사 근처 대량 방치 있는 것으로 확인.

추후 다시 확인하여 비닐작업 및 홍보계도 예정입니다.

“안남천협의회”는 대청호직유입 하천의 수질개선 실천활동 및 주민들의 환경의식과 마을가꾸기 자치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늦게 시작되고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모든 사업이 원활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글 이상호 천안아산네트워크 팀장

대청호 하류 소유역 거버넌스 구축과 맑은 물환경 조성 주민 실천 방안

대청호 하류 소유역 거버넌스 구축과 맑은 물환경 조성 주민 실천 사업의 목표는 병천천에 인접한 마을, 축산단지, 주변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및 인근 농경지 비점오염원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량 유입되어 수질악화 및 부영양화 등으로 수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지역주민, 기업, 시민단체, 학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하천 살리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병천천 소유역거버너스 구축을 통해 주민 실천활동 전개 및 물 공동체 문화 조성 및 병천천 유역 수질 및 수생태계 등 하천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정책 제언을 통한 친환경 물 순환 도시의 조성이 목표입니다.

천안아산네트워크는 유역관리 시대에 맞추어 지방 하천(병천천)을 중심으로 한 소유역 거버넌스(MOU)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병천천 소유역거버넌스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유역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적 관계 모색을 통해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유역거버넌스를 통해 맑은 물환경 조성 실천활동(정화활동), 주민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하천감시활동 및 오염원 지도 작성, 물환경 프로그램 개발, 수환경 생태조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했지만 전염병 위기단계 격상 등으로 인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와 소통의 자리가 대폭 축소되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협약, 실천활동 (정화활동),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실천활동(정화 활동)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에게 색다른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환경교육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지역주민과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천안아산네트워크는 상반기 부족한 활동과 사업을 하반기에는 빈틈없이 계획하고 추진하여 지역주민, 기업, 시민단체, 학교 등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하천 살리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글 김인영 영동네트워크 팀장

영동네트워크와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하천 가꾸기

영동네트워크에서는 매년 5회 마을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정화활동을 진행합니다.

마을하천정화를 필요로 하는 마을을 찾아가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 정화활동입니다.

하천정화활동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천정화활동을 하고 관리 감시하는 역할을 해주어 마을 하천이 눈에 띄게 깨끗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영동 24지점 수질관리를 맡고 있는 하천감시단을 중심으로 영동네트워크와 서로 협력하여 하천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동네트워크는 앞으로도 마을 주민, 시민단체 등 많은 분들과 함께 마을하천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며 대청호보전운동본부를 널리 알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조만간 물환경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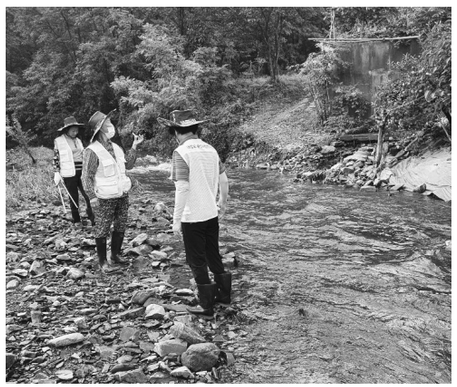
글 우미란 청주네트워크 팀장

주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형 유역관리활동

청주네트워크에서는 대청호에 직접 유입되는 상류 하천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 홍보, 계도, 정화활동 전개를 통해 대청호의물환경개선과 맑은물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문의권역 소유역협의회 운영과 주민하천관리단 활동을 진행합니다.

2020년 올해는 지난해에 구성된 문의권역 소유역협의회를 확대하여 기존의 상류하천(묘암천, 노현천, 구룡리천)외에 등동천과 마을의 참여를 통해 대청호 상류에 직접유입되는 하천관리와 소유역협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격월로 진행되는 청주네트워크운영위원회와 소유역협의회 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하며 각 마을별 주민하천관리활동 결과와 개선방향을 논의하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주민하천관리단을 구성하여 6개 마을, 32명의 하천돌보미가 대청호에직유입되는 주요 하천(노현천, 구룡리천, 묘암천, 등동천)의 하천관리활동을 위해 6월 2일 주민하천관리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1회 하천관리활동을 전개하여 상반기에 3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의권역 소유역협의회의 단합과 대청호물환경 개선의 의지를 모아가기 위한 단합행사와 지속적인 주민하천관리활동을 통해 주민 주도의 일상적 하천관리활동 전개로 참여협력형 유역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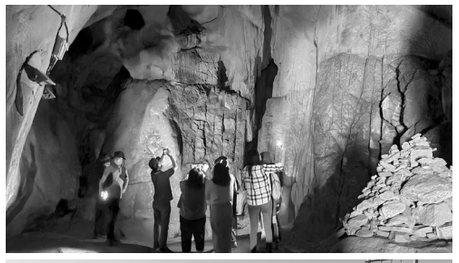
“심층연구와 현안대응,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연구과제 중간보고회 및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현안모니터링 진행중

우리단체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배병욱)는 2개의 연구과제와 더불어 대청호 현안대응을 위한 현장조사(모니터링)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연구과제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수질·수생태계 모니터링에 따른 개선대책 검증연구, 국제적 물 이슈에 대한 이해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국제협력기반 마련연구 등 2개의 연구과제를 기획, 현재 진행중이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간보고회를 서면회의로 대체(9. 21)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현안모니터링활동을 연구과제 담당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2013년 당시와 7년이 지난 올해까지의 현장상황은 어떠한지 전후 현황을 비교분석하면서 개선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현안모니터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첫 모니터링은 지난 6월 17일,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동구 사성동일대 연육교건설예정지부터 옥천군 대정리(방아실) 불법수상레저 영업현장까지 전반적인 현안을 확인하고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성행하는 개발행위 등에 대한 상생의 대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모니터링은 9월 22일,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문의면 습지관리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환경부 상수원 상류유역 거점형 오염저감 시범사업대상지를 점검하면서 구석기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두루봉돌굴과 작은용굴의 관리현황 등 점검에 나섰다.

청주시 관계자는 “작은용굴의 경우 사유지내 속해있어 공원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남대를 오고가는 차량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곳이어서 더욱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체계가 잘 정비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대청호 주변에 환경오염저감시범사업이 인공습지형태로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목표가 불분명한 인공습지형태의 환경오염저감시설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글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국장

“민관 실무활동가 긴밀한 소통체계 확립”
“분야별 이해당사자간 입장차이줄이기 관건”

서화천유역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 연구 두 번째 실무팀회의가 지난 9월 22일 오후 2시, 대청호유역하천센터에서 진행됐다.

서화천 수질개선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관 진영의 실무연구팀 10명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계획된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하반기에 준비된 연구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이해관계의 차이를 좁혀나갔다.

이날 회의전 둠벙조성예정지인 군북면 막지리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손호연이장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사전 주민교육과 사후 운영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무엇보다 경관조성이 아닌, 수질개선의 목표가 분명해야 함을 주지했다.

이에 따라 실무팀회의에서 도랑살리기 마을사례 구축을 위해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 생활하수 오염도 저감을 위한 작은 둠벙설치가 계획대로 진행키로 하였음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막지리 주민들과 함께 천연제품만들기체험을 비롯한 환경교육과 실천활동을 진행하면서 환경실천의지를 북돋우며, 사후관리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옥천읍을 관통하는 금구천본류구간내 우수토실의 건강한 관리를 위하여 현장조사 및 정책토론회를 기획하면서 옥천군내 하수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외부사례발표(수원천 우수토실 관리사례) 등을 통해 바람직한 하수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일조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서화천유역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강수계위원회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관리로 시행되는 연구용역으로 확정되어 우리단체가 3년동안 시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로, 대청호녹조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다양한 수질오염원을 매주 모니터링하며, 특히 심각한 구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과 공동조사를 통해 발빠른 오염원조치활동을 수행하면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글 김재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맑은 회인천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

9월 18일 회인면 신대리 정화활동

올해는 지나치게 길었던 장마였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난 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회인천 수질개선을 위해 회인천을 공유하는 지역 주민, 지역단체, 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환경 전문가 그리고 우리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협의를 하여 추진해온 회인천 수질 개선 거버넌스 사업은 올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운영, 방치축분조사 및 비가림 설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 사업 중 가장 인상이 강한 사업을 꼽자면 단연 마을 정화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활동가가 되면서 가장 먼저 참여한 사업이 바로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 마을 정화활동이고, 가장 많은 주민들이 회인천 수질개선을 위해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정화활동은 예년 같으면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와 유난히 긴 장마의 영향으로 9월 추석 연휴 이전에 정화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9월 22일 시점으로 회인면 고석리, 신대리, 죽암2리, 용촌2리, 부수2리 다섯 마을이 정화활동을 완료했고 앞으로 송평1리, 송평2리, 눌곡리, 용곡1리까지 네 마을은 추석연휴 이전 오동리는 추석연휴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정화활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해야하는 만큼 마스크가 필수며 되도록 거리를 두고 활동을 했습니다.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주민 분들 모두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정화활동 했던 마을 중 신대리는 대청호와 회인천이 만나는 합수부 지역으로 이전부터 회인천에서 내려온 쓰레기와 대청호에서 역류해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곳입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가 길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예년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쌓인 곳입니다. 정화활동을 함께 하면서 마을 주민 모두가 합심해도 하루 정화활동으로는 수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는 신대리 뿐만 아니라 대청호와 회인천이 만나는 마을 모두가 겪는 문제인데요. 회인천 수질개선 거버넌스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보고 개선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쓰는 시점에서 올해 계획한 정화활동 일정이 절반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정화활동 일정 무탈하게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며, 내년에는 코로나 걱정 없이 마을 정화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1차 이사회 서면심의로 진행

지난 9월 2일 예정되었던 1차 이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대면회의를 서면회의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상반기 사업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이건희 사무처장의 신규위촉 보고가 있었다.

첫 번째 심의안건인 '네트워크 사업계획 변경'은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사업을 수정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보은·옥천·금산·대전의 4개 네트워크의 수정사업계획이 승인되어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두 번째 심의안건은 보은군 산수리마을의 신규회원마을 승인에 대한 내용이었다. 보은네트워크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제출된 것으로 이사의 대부분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는 뜻에서 승인하였다.

세 번째 심의안건은 기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였다. 2020년 정기총회에서 기금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두고, 기금의 증액 및 다원화에 대해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기금위원회는 네트워크, 정책연구위원회, 수자원공사등이 포함된 7명으로 구성하여 12월까지 활동하고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기금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대청호보전운동을 다양하고 왕성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청호유역하천센터 3차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9월 8일 대청호유역하천센터 3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안타깝게도 이번 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를 하지 못하고 회의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서면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한 비닐 덮기, 홍보현판 설치 등을 추진한 사업보고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과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확산되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지역별 하천감시단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오랜만에 모여 인사나누고 의견을 주고받아 감시단분들도 좋아했고 성과적이었다고 평가를 하였다.

8월 하천현황에 대한 안건에서는 장마기간 용담댐 방류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건의하자는 의견, 금산 생태습지가 대부분 유실되어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댐 방류로 주민의 피해도 크고 하천의 손실도 크다는 의견 등이 제출되었고 또한 댐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차원에서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도 있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개선되어서 대면회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청호 불법 레저업체 사망사고 손해배상… 1·2심 옥천군 승소

2017년 5월 대청호에서 모터보트가 끌어주는 물놀이용 튜브를 타던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다.

튜브가 뒤집히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A씨가 구조되지 못한 채 숨진 것이다.

문제는 이 모터보트를 운영한 수상레저업체가 관청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였다. 그러다 보니 이 업체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류장을 설치했고 레저객의 구명조끼 착용 확인도 게을리했다.

A씨 부모는 충북 옥천군이 불법 계류장을 정기적으로 점검·단속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8년 9월 정부를 상대로 10억7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한 A씨 부모가 항소했으나 수원고법 제2민사부는 지난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업체가 모터보트를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했고 구명조끼 착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하천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옥천군이 대청호 내 무등록 수상레저업체를 단속해 왔고, 대청호 유역이 넓다는 점에서 군이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더욱이 옥천군은 경찰·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 단속에 나섰고, 계류 시설 철거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했다. 군은 대청호 현장에 '수상레저 영업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사고 발생 시 피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간다'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이런 점을 들어 재판부는 옥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부모는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 2020. 08. 23 심규석 기자

금강유역위, '세종보 해체 - 공주보 부분 해체' 확정

25일 전체회의에서 결정, 백제보는 '상시 개방'… 환경단체, 해체 시기 '단서조항' 우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 공동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는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4대강기획위)가 제안했던 금강 3개 보 처리방안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세종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공도교 기능을 살린 채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의 의견문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금강유역위는 25일 오전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강 3개보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문을 심의·의결했다. 금강유역위가 이 의견문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하면, 위원회는 영산강유역위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오는 10월경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날 금강유역위 전체회의에 앞서 지난 22일 열린 정책분과위원회에서는 공주보와 백제보는 4대강기획위의 제안에 따르지만, 세종보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의견문 초안을 작성해 환경시민단체들의 공분을 샀다. 그러나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세종보도 당초 4대강기획위의 제안대로 '해체'하는 쪽으로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세종보의 경우 최근 환경부, 국토교통부, 세종시,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해체 시기를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주보도 부분해체를 제안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부분 해체 시기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들의 외압으로 세종보 자연성회복안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 원안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따라서 환경시민단체들은 금강유역위가 4대강기획위 금강 보 처리 제안에 따른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해도 단서 조항 때문에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최근 환경부 등이 보여준 난맥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금강유역위가 당초 정책분과위원회가 만든 초안을 수정하면서 4대강 기획위의 결과를 수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단서조항이 없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정했어야 했다"면서 "그동안 시민의식조사를 공개하지 않고, 일부 위원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회의 당일에 제척하는 등 운영상의 미숙함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도 "환경부 4대강 기획위의 당초 안대로 수정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해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실행 이후'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세종보 해체 수순을 기약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 처장은 이어 "공주보의 경우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역 여론을 수렴해왔는데, '지역 여건을 고려한다'는 단서 조항을 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때까지 구체적인 보 해체 시기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인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도 "금강보처리 방안이 정부 제시안인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으로 금강유역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국민과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한 수용성 높은 결정"이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유역위의 보처리 결정 제출안대로 확정하고, 관련 사업과 보 처리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면서 사업의 성과, 지역여건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심의·의결한 금강유역물관리위 의견문과 오는 28일에 개최될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문을 종합 검토해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오마이뉴스】 2020. 09. 25 김병기 기자

대청호 추동수역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

대청호 추동수역에 3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추동수역 내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관심 단계 발령기준(1000세포/mL)을 2주 연속 초과해 이 같이 조치했다.추동수역 유해남조류 증식 원인으로는 7~8월 내린 집중호우로 유입된 영양염류와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등이 꼽히고 있다.

금강청은 대청호 조류 발생 현황과 경보 발령상황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면서 취·정수장 및 수질오염원 관리 등 기관별 역할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문의수역 조류분석 결과 조류경보 발령기준 '경계' 단계를 1회 초과함에 따라, 주변오염원 집중단속, 낚시·수영 등 친수활동 자제 등 경계단계에 준하는 대응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하준 청장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폭염으로 인해 대청호 내 유해남조류 증식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강청이 대청호 문의취수탑과 추동취수탑을 통해 충청권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6개 광역정수장을 대상으로 수질검사한 결과 조류 독성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밖에 흙냄새 등을 유발하는 '2-MIB'와 '지오스민'도 기준(0.02㎍/L)보다 미량으로 검출됐다.

대청호 유해남조류 분석 결과는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며, 가정으로 공급되는 정수에 대한 검사 결과는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1】 2020. 09. 03 김종서 기자

옥천 대청호 상류 '녹조와의 전쟁'

옥천 대청호 상류에 녹조가 발생해 호수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들어와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다. 대청호가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유입된 부유쓰레기 대란에 이어 이번에는 녹조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녹조가 가장 심한 곳은 대청호 최상류인 옥천군 군북면 지오 및 추소, 석호수역으로 호수가 녹색 물감을 풀어 놓은 것처럼 변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지만 올해는 장마와 태풍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다.

지오수역은 서화천 생태습지를 조성한 주변이다. 최근부터 이 곳은 대청호에서 가장 먼저 조류가 발생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서화천 생태습지를 조성했지만 걸러주는 역할은 부족한 상태다. 대청댐지사도 이 지역을 유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장마가 그친 이달 중순부터 상류지역인 군북면 추소리, 석호리, 지오리 등에서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대청호 관리 당국도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차단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추소수역은 19일부터 15명이 투입돼 녹조제거 작업에 들어갔다. 갈대 등 쓰레기와 뒤엉킨 악취나는 녹조를 하루 150포대씩 일일이 배로 건져올리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찬훈(67) 회장은 "현재 추소리 녹조는 부소담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갈대 등 녹조쓰레기를 일일이 배에 건져 올리고 있어 작업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오수역도 지난 18일부터 녹조방제 선을 띄워 녹조수거에 나섰고 수면포기기까지 설치하고 가동하고 있다. 호수관리 당국 등은 대청호 유역에 지난달 750여㎜의 많은 비가 내려 부영양화 물질이 다량 유입된 데다가 수온도 높아지는 추세여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이미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6일 회남수역에 조류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남조류 수가 2주 연속 1천cells/㎖를 넘어섰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녹조가 심한 지오수역은 지난해 대청댐지사에서 이백리 서화천 수초를 정리도 했다. 11월 늦게까지 심각했던 녹조가 재현될 가능성에 미리 정비한 것이다.

그런데 매년 대청호에서 대표적 녹조권역으로 잘 알려진 추소리는 5월 중순 환평수역에서 시작해 8월이면 추소수역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최근에는 바뀌어 날씨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옥천 대청호에 녹조가 발생하면 진행속도가 빠른 것은 인공호수인데다 저수면적보다 유역면적이 넓고 구불구불해 소옥천에 흘러들어온 물이 오랜 시간 머무는 특이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대청댐지사 관계자는 "대청호 유역에 장맛비로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된 만큼 물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녹조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며 "추동, 문의, 회남 등에는 이미 관심단계가 발령된 상태며 추소리와 지오리는 장마가 끝나고 지난주부터 조류가 생겨 유압식 녹조방제선 투입 등 장비를 가동하고 있는데 수질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충북일보】 2020. 09. 20 손근방 기자

대청호 역대 최장 장마로 1만 816t 부유물 수거 완료

역대 최장의 장마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로 밀려 든 1만 8천t이 넘는 부유물 쓰레기가 모두 수거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18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와 함께 대청호에 유입된 부유물 1만 816t을 수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평균 유입량인 2603t의 4배가 넘는 것이다. 올해 대청호 유역에는 지난 7월 19일부터 최근까지 무려 47일 동안 연간 강우량의 무려 77%에 해당하는 903㎜의 비가 내렸다.

수거된 부유물의 90% 가량은 풀과 나뭇가지며 나머지는 생활쓰레기다. 풀과 나무는 톱밥과 퇴비 원료로 활용하고 생활쓰레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매립할 예정으로 처리 비용은 전액 금강환경청이 지원한다. 처리 비용만 2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청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함께 선박, 중장비를 집중 투입해 8월 중순 경 부유물 대부분을 수거했지만 연이은 태풍으로 부유물이 추가 유입돼 시일이 다소 늦어졌다"며 "앞으로 추가 유입되는 부유물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수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2020. 09. 18 박현호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홍보 동영상 제작

금강유역환경청이 대청댐 상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교육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

2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에게 가계생활비와 마을회관·복지관 건립, 마을농기구·친환경퇴비 등을 지원한다.

금강청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 간담회 등을 마련, 사업설명과 홍보를 해왔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단 규제지역 주민들 요청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여건 등을 고려, 방역지침 준수 아래 순회설명회를 병행한다.

해당 동영상은 금강유역환경청 누리집과 블로그, 환경부 유튜브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대면접촉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동영상이 주민지원사업 체감효과와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제9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7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9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지식경영 부문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기반의 고객 서비스와 기술 혁신을 위해행정 및 공공, 민간 분야의 우수사례를 매년 발굴하고 포상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혁신 대상이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시상식 등 별도의 행사 없이 마무리 됐다.

이번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식활동 기반의 대국민 정책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대폭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사물인터넷기술(IoT)을 적용한 스마트 수도계량기를 통해 취약계층의 물 사용량을 분석해 위기 징후를 발견해 복지기관 등에 알려주는 '위기 알림 서비스'를 개발해, 적용하고 있는 사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물 사용량이 기존에 비해 급감하거나 장시간 사용이 없으면 이를 사고나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판단해 질병과 사고 등에 취약한 홀몸 노인, 장애인 가구의 돌봄에 활용되고 있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총 83개 '학습동아리(CoP: Community of Practice)' 운영을 통해, 지난 16년간 누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돗물 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파악해 고객 민원을 약 12% 감소시킨 사례, 경남 통영시 욕지도의 30년간 지속된 하루 5시간의 제한 급수를 해결한 사례 등에서 지식경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대한민국 지식대상' 외에 국내 공공부문으로서는 최초로, 지식경영 분야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Asian MAKE(Most Admired Knowledge Enterprise)'상을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 Asian MAKE: 지식경영 연구기관인 영국의 텔레오스(Teleos)社 주관으로 전 세계와 지역단위(유럽, 아시아, 북미 등)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식경영 기업을 선정하는 상.

이 밖에도 5년 연속(2013~2017) Global MAKE 상을 수상하는 등 지식경영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50여 년 동안의 물관리 노하우와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지식경영을 강화해가고 있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혁신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 중단" 촉구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는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업은 시비 총 20여억 원을 투입해 대덕대교부터 둔산대교까지 약 1.2㎞ 구간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다.

교량 구조물 측면에는 미세먼지 알림 조명을, 갑천 둔치에는 음악이 나오는 스마트가로등 등을 설치한다. 교량 하부에는 트릭아트와 증강현실(AR)을 구현할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야간조명은 하천에 서식하는 생태계에 치명적"이라며 "수달과 삵 너구리 등의 야행성 포유류와 빛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류들에게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태축을 훼손하며 인공 시설물을 설치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54일간 내린 비로 하천 둔치에 건설된 대규모 시설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며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훼손되는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규모를 조정해 기후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 대기오염 시민 모니터링 참가자 모집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 실천으로 '2020 대전 대기오염 시민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기오염 모니터링은 대전의 주요 교차로와 초등학교 등 100지점에서 진행되며, 간이측정 캡슐을 이용해 조사가 진행된다.

초등학생 이상의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천식·알레르기·비염과 같은 환경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 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인 이산화질소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대전시 대기오염 지도를 발간하기로 했다.

또 시민 캠페인, 차 없는 거리 확대, 도심 벙커C유 퇴출,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등 정책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기오염 모니터링은 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 지난 2005년부터 16년째 진행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환경 캠페인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현재 대전시는 작년 9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전략 2.0'을 발표해 2020년까지 PM2.5를 18μg/㎥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예산 245억을 책정했다"면서도 "대부분의 예산이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돼 있고 단기적 대책들뿐이라 장기적 대책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정책과 자전거와 같은 그린 모빌리티 인프라를 확충을 통해 자동차 이용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예산투입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 시민단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온라인집회 열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가 온라인에서 열렸다.

청주충북환경연합 등 충북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유튜브 채널 '미디어 제트'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원회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에 반대해 집회와 1인 시위 등 오프라인 활동을 벌여 왔다.

그러나 최근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명 이상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반대활동 장소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겼다.

온라인 집회에서 그동안 활동사진과 영상 등이 소개됐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오황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LNG는 기후변화 위기, 지구 온난화를 낳는 화석연료의 일종"이라며 "청주와 충북의 환경에 유해한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온라인 집회에는 100여 명이 참여해 실시간 댓글로 구호를 외치며 호응했다. 대책위원회는 25일 2차 온라인 집회를 연다.

SK하이닉스는 2022년까지 8천억 원을 투입해 충북 청주 흥덕구 테크노폴리스에 585MW규모의 LNG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 / 무주 4-H본부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 4-H본부,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반딧불산나물친환경영농조합법인,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 / 사단법인 정심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사)정심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 /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산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보은네트워크

사무국 /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종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 /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시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청주네트워크

사무국 /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천안시

■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